

STORY 스무 고개, 수많은 이야기 강원도 인제·고성 잇는 대간령

지루한 진부령, 험악한 미시령 사이 유순한 길 “사람 겁나게 와”

정영재 기자 rimrim@joongang.co.kr

원래는 이 길이 아니었다. 군부대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길을 막아버렸다. 하지만 길요하면, 사람이 들락이던 길은 바위나 바다에도 생기고 만다. 그래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 대간령(大間嶺·641m)으로 향하는 길은, 1980년대 들어선 특공부대 때문에 물 위를 건너게 됐다. 강원도 인제와 고성을 잇는 백두대간 고개 대간령을 찾은 날, 유난히 물을 많이 만났다. 사나운 비에, 하늘 어딘가는 무너질듯했고 땅 어느 곳은 꺼질듯했다.

“아, 그니까, 쪽 그대로 가면 될 것을 왜 자주 일루와?”

숙칭 ‘알바(산길을 헤매며 고생함)’를 했다. 밭에서 김매던 할머니는 한숨을 쉰다. “아휴, 한 달에 50명은 이쪽으로 잘못 넘어와.” 물 위에 난 길을 못보고 지나쳐 미시령농산물직판장까지 흘러가고만 ‘알바생’들만 1년 500여 명. 그렇다면 길을 제대로 간 ‘정규직’까지 합하면, 대간령을 찾은 이가 많다. 인제 용대리에서 대간령으로 향하는 들머리격인 박달나무쉼터의 김복순(70) 사장은 “나는 자연 머인 가 하는 방송에 여객(여기가) 나오더만, 사람이 겁나게 온다”고 말했다.

한계령 도로 개설 전 60년대까지 애용

대간령. 강원학연구센터에서는 지난해 12월 ‘굽이굽이 넘어가는 강원도 고갯길’이라는, 백두대간 고개를 북에서 남으로 짚는 책을 엮었다. 목차는 남한 최북단 백두대간 고갯길 진부령이 첫 번째요, 그 다음이 대간령이다. 잘못 발음하면 책 여섯 번째로 나오는 ‘대관령’으로 들린다. 책에서도 그렇듯, 인제와 고성 사람들은 대간령 대신 ‘새이령’으로 부른다. 이 고개(이하 새이령)는 신선봉(1244m)과 마산봉(1052m) ‘사이’에, 진부령(520m)과 미시령(826m) ‘사이’에 있다. ‘사이’의 강원도 방언은 ‘새이다. 진부령과 미시령, 그러니까 고개와 고개 사이에 있다고 해서 ‘새이령’이라고 부른다는 게 이곳 사람들의 말이다. 대간령은 예전 소파령(所波嶺)으로도 불렸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은 ‘소파령은 석파령(石破嶺)이라고도 했다’고 쓰고 있다. 이식(1584~1647)은 『수성지(1633)』에 ‘죽도와 토성 사람들이 영서로 갈 때 쓰던 지름길’이라고 기록했다. 그래서 지름길을 뜻하기도 하는 새이령은 새이령의 다른 이름인 ‘새령’을 낳았다고 한다.

고개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꽤 인기가 있었다. 1971년 한계령에 44번 국도가 깔리기 전, 1960년대까지는 말이다. 근처 주민들은 “진부령은 지루하고, 미시령은 짧지만 까다롭고, 한계령은 수려하지만 험악스럽고, 구룡령은 장쾌하지만 무겁다. 반면, 새이령은 참으로 부드럽다”며 주변 고개보다 인지도가 높았음을 밝히고 있다.

정말, 길이 부드럽다. 트레킹 맛에 딱 빠진 이나, 아이들 낀 가족이 와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사정 안 가린 장맛비는 박달나무쉼터부터 새이령까지, 마른날에는 볼 수 없는 도랑과 개울을 만들었다. 그보다 큰 내(川)와 개천까지 합쳐 물을 무려 서른두 번 건너야 했다. 미시령을 물이 이어진다. 연수파령(連水坡·連水峯)이라고도 했으니, 그 못지않다. 그러다 문득, 격정이 쏟아졌다.

“아, 이 정도로는 걱정 없어. 물이 크게 불어나지 않는다고.”

마장터에서 40

현지인들은 새이령·새령이라 불러 부대 들어서 물 위로 다른 길 탄생 산길 해매는 ‘알바생’만 1년 500명

현대전화도 안 터지는 오지이지만 트레커·라이더 몰리는 인기 코스 숨은 비경 도원계곡 등 볼거리 많아



여년간 살아온 백두(70)씨가 자신 있게 말했다. 고개에서는 이쪽과 저쪽의 사람이 오가고 이런저런 물결이 거래됐다. 새이령에서도 속초와 양양의 소금·고등어·미역이, 인제의 감자·콩·팥이 만나는 장이었다. 말 거레가 이뤄졌거나 말을 키웠다고 했으니, 마장(馬場)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터만 남아 마장터라고 한다. 그런데, 인제 쪽 사람들이 남은 장사를 했단다. 예전 강원도 산비탈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농산물이 해산물보다 더 귀한 취급을 받으면서 영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윤을 남겼다는 것. 하여, 한 편이라도 더 벌려면 속초·양양 사람들은 원통까지 질러가 해산물을 팔았다. 그런데, 축지법 쓰는 흥길동이 아닌 이상 당일치기가 안 되니, 이들이 머물게 된 마장터와 새이령 고갯마루에는 집 30여 채와 주막이 들어섰다.

마장터를 비롯해 고개 서쪽(영서)은 ‘발갈애비’들의 땅이었다. 강원도에서는 논밭 가는 사람들을 ‘발갈애비’ 혹은 ‘보애비’로 불렀다. 발갈애비 기술의 정점은 화전 경작이었다. 밭이 비탈진 데다, 돌과 나무뿌리가 많아 소가 끄는 겨리연장(장기)을 기술적으로 써야 했기 때문이다. 인제·화천·양구·홍천 등 영서 중북부 지역은 화전 경작의 중심지였다. 우하영(1741~1812)이 『천일록』에 쓴다.

‘(강원도) 산골짜기에는 본디 황무지가 많아서 풀과 나무가 무성하고 뽕뽕하니, 목정밭을 불태우고 경작하고 파종하며... (음력) 5-6월 사이 한 달 동안 장맛비가 오면 곡식이 모두 녹아버린다... 강원도 산골만이 발농사를 망치면 바로 우리도 산하게 되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마장터에도 화전을 일군 발갈애비들이 있



강원도 인제군과 고성군을 잇는 백두대간 고개 대간령(641m)을 현지 사람들은 새이령 또는 새령으로 부른다. 진부령과 미시령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한 탐방객이 영동과 영서를 오간 관리들이 묵었던 원(院)터 근처를 지나고 있다. /김홍준 기자

었다. 그들도 고향을 떠나야 했다. 백씨는 “오면서 낙엽송은 보셨나”라며 운을 댄 뒤 “그 나무들은 내가 1970년대 후반 이곳에 왔을 때 정부에서 화전민을 몰아내고 심은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만 해도 발갈애비들이 5명 있었고, 박정희 정부에서 화전정리사업을 하면서 갈 곳이 없어 내 집에 얹혀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다”고 덧붙였다. 40년 훌쩍 지났건만 어색한 약수를 하는 것처럼 여전히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는 발갈애비들의 집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처럼 종대와 횡대를 맞춰 기립해 있는 낙엽송... 폭신하고 유순한 길, 아찔하도록 아름답게 솟은 낙엽송에 역사 한 토막이 박혀 있었다.

최근 새이령이 뜬 이유 중에는 백씨의 귀틀집도 한몫했다. 박달나무쉼터를 벗어나자마자 핸드폰 안테나가 전혀 뜨지 않는 오지 중의 오지에, 백씨가 20년 전 국립공원공단에서 간직한 낙엽송으로 지은 집은 분명 성지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이 싫어 40년 전 이곳에 들어왔다고 했다. 도중 10여년간 미국에서 생활하기도 했는데, 그에게서도 산업화와 민주화 사이 격랑 불던 현대사 몇 토막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백씨는 “주유천하를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이곳을 떠난다는 얘기다.

고개 넘어 도원리로 향했다. 2005년 12월 새이령을 다룬 중앙일보 기사(이 기사는 ‘새령’으로 표현)는 ‘길은 그 흔적이 희미하며, 이따금 가뭇없이 사라지기도 했다. 낙엽 더미에 옛길이 파묻힌 탓인데, 간간이 가슴 높이까지 차는 낙엽 더미 속에 몸이 빠졌다’고 쓰고 있다. 서울에 115mm의 비가 내린 날, 낙엽 대신 물이 많았다. 사람은 없었다. 용대리 쪽 부드럽던 길은, 고갯마루 지나 도원리에 접어들면서 사납게 변했다.

고갯마루엔 말 거레한 마장터·집터도

이곳은 설악산국립공원이다. 하지만 강원 고성 사람들은 예로부터 미시령 북쪽 너머를 금강산으로 본다. 고성군 토성면 도원1리의 정해길(70)씨는 “금강산 1봉이 신선봉이요, 2봉은 마산봉”이라고 말했다. 밖에서는 설악산으로 부르지만, 안에서는 금강산으로 부르는 것이다. 설악산에는 다른 이름의 산이 촘촘히 나온다. 최원성 경상대 명성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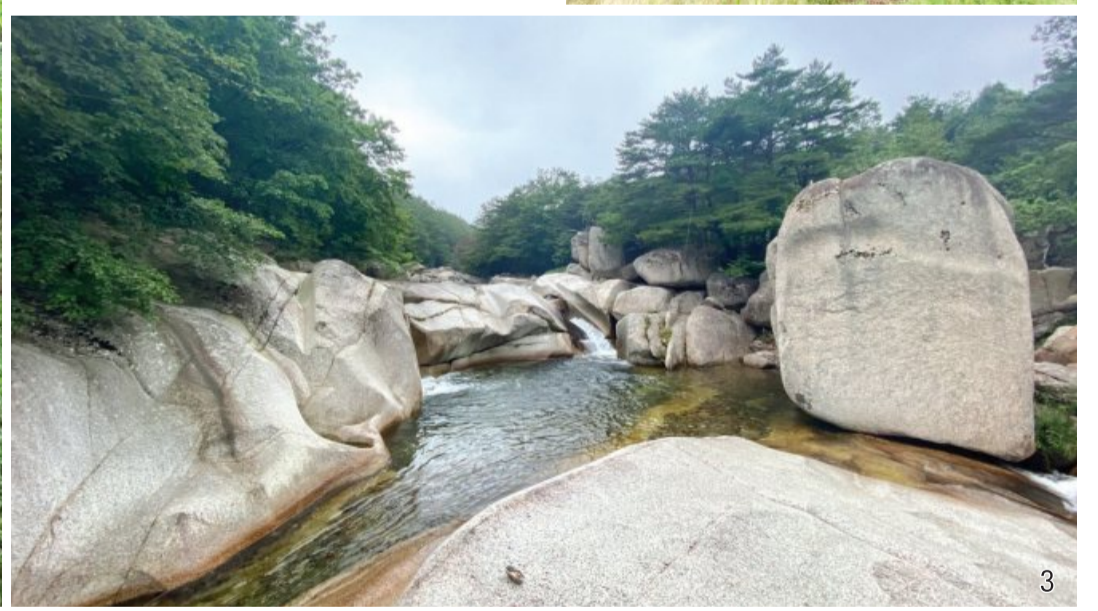
구센터장은 “조선 시대에 울산바위는 천후산(天吼山), 한계령 이북은 한계산(寒溪山)이라고 불렀고 당시 설악산은 대청봉을 중심으로 한 곳”이라며 “조선 후기에 와서야 일부 문헌에서 설악산이라는 이름이 한계산·천후산을 포함한 대표 지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선봉과 정봉산(1424m)이 설악산국립공원으로 들어간 게 각각 2003년, 2011년이니, 설악산은 혼자가 아닌 것이다.

라이더들의 성지로 뜬 도원 임도를 지나 도원계곡에 들어섰다. 현대전화 안테나가 5시간 만에 다시 됐다. 눈이 확 뜨였다. 이 계곡은 의외다. 손으로 빛고 칼로 썬 듯한 바위와 속도지 않은 질퍽른 물과 만난, 지나치기 힘든 비경이다.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에 사는 이창희(57)·정인경(59)씨 부부는 “집 앞의 아야진 바다도 좋지만, 뒤의 도원계곡은 정말 숨기고 싶은 곳”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도원’은 무릉도원에서 이름을 가져왔나 보다. 새이령 길이 막혀도 다시 만들어진 이유는 이런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1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 대간령으로 향하면 만나는 낙엽송. 2 국립공원공단이 간직한 낙엽송으로 지은 백모씨의 마장터 건물. 3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도원계곡의 선녀폭포. 4 도원리 무릉도원공원의 함아리 보부상을 형상화한 건물. /김홍준 기자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